

DuPont, 창사 200돌 대형 이벤트 개최

세계적인 종합화학 및 생명과학 회사인 미국 DuPont이 2002년으로 200돌을 맞아 대형 기념이벤트를 가질 계획이다.

듀폰코리아는 200주년을 맞아 듀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시회와 주요 거래처 고객을 초청하는 대규모 골프 대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1800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화학자 E.I.듀폰(DuPont)이 1802년 7월19일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한 농장에 설립한 흑색 화약 공장이 듀폰의 모태이다.

화약이 터널, 철도, 광산을 개발해 미국 대륙을 산업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듀폰도 급성장을 거듭했다.

듀폰은 화학, 의류, 전자, 생명공학, 에너지 등 전산업에 걸쳐 1800여종의 산업용 소재를 생산·판매해 2001년 27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듀폰은 설립 100주년이었던 1903년 세계 최초의 민간연구소인 듀폰 중앙연구소를 만들었다.

듀폰코리아는 매년 13억달러 안팎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나일론을 개발하고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찰스 패터슨을 배출했으며, 현재 5만2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듀폰은 1977년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유한회사 듀폰과 듀폰다우엘라스토머스(주), 디에스아이(주) 등 3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 3800억원의 총 매출을 기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2/ 19>